진로 로드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최**

1.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성장하는 삶을 살고 싶다. 엄청난 일을 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한 단계씩 밟아 성장했으면 좋겠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더 좋은 선택지가 주어질 거라 생각한다. 그럼 그 선택지에서 또 열심히 하다보면 어느덧 내가 원하던 곳에 있을거라 믿는다. 이렇게 나는 주어진 일을 하며 흘러가듯이 살고 싶다.
그리고 타인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싶다. 관심이 있는 직종도 전부 카메라 감독, 편집가와 같이 서포트해주는 느낌의 직업이 많다.
나의 도움으로, 나의 직업으로 인해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더 없을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싶다.
또 재미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나의 삶은 한 번 뿐이라고 생각을 자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 도전 할 수 있는 일 모두 해보고 싶다. 나의 도전으로 구르고 다치고 성공하고 기뻐하며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재미를 찾는 삶을 살고 싶다.

2.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DISC 검사 중 S 유형과 C 유형이 모두 높게 나왔다. S유형은 안정성을 강점으로 가지고 평화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활동에 유익함을 줄 때가 많다.
C유형은 신중성을 강점으로 가져 단호한 면이 많다. 그래서 신중하게 따져보는 면이 있다. 교수님의 말씀으론 두 가지 모두 공무원직을 맡은 사람에게 자주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한다. 과정을 중시하며 주어진 일을 하고 조직생활에 잘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각 유형별 성격을 알아보며 나와 알맞게 잘 나왔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팀플을 해도 과제에 모두의 의견을 받고 모두 만족하는 결과로 끝이 났으면 한다.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나의 입장을 먼저 상대방에서 설명해준다.
후에 상대방의 의견도 듣고 서로 이해를 통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맡은 일은 완벽하게 끝나야한다. 그래서 나는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

3. 나에게 맞는 직업세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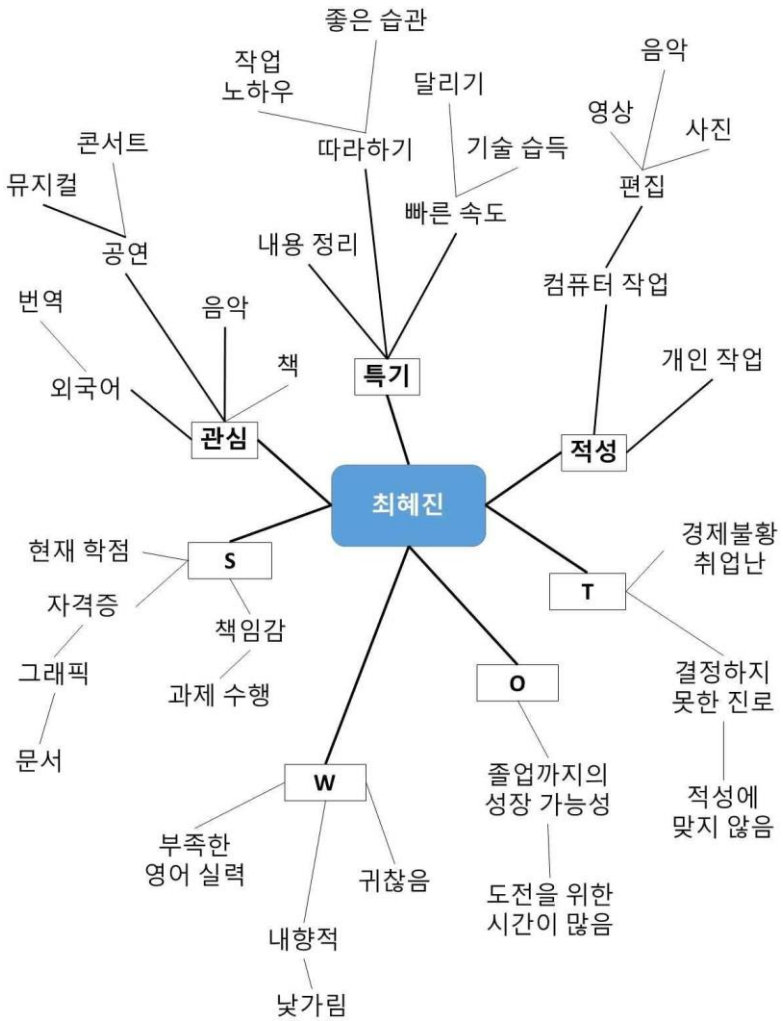
나는 주로 음악, 공연, 방송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관련된 기업인 JYP 엔터테인먼트와 YG 엔터테인먼트를 찾아보았고 추가로 방송국 SBS를 찾아보았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종합엔터테인먼트로 음악 컨텐츠 기획, 제작 기반으로 음원, 음반,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유통업, 매니지먼트 등 아티스트에 관련한 다양한 일을 종합적으로

운영한다. YG 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로 음반 및 음원 산업, 공연 산업, 매니지먼트와 소속 아티스트 ip활용한 콘텐츠 사업을 운영한다. SBS는 지상파를 근간으로 콘텐츠 제작, 유통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이들 모두 자체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음악, 공연, 매니지먼트 등 다양한 분야를 한 기업에서 운영하며 영상, 음악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소속 아티스트 ip 혹은 방송 아이템을 활용해 음반, 공연, 영상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며 관련 상품 제작, 판매까지 진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직업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또 기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4. 마인드맵



5. 내가 설정한 장,단기목표는?

내가 일주일동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니 생각보다 버리는 시간이 많다는 걸 알게 되다. 먼저 집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등교할 때에 이동 시간이 생기는데, 하루에 등교, 하교 두 번 총 3시간이 걸린다. 학교를 5일동안 나가니 일주일에 15시간이라는 남는 시간이 생긴다.
또 자기 전 2시간씩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일주일만 계산해보아도 14시간이나 된다.
당시에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모아보니 많은 시간들을 아무것도 하지않고 버리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시간에 휴대폰, 멍 때리기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게되다.
바로 책 읽기와 한자 공부이다. 두 가지 모두 중간에 끊어지더라도 나중에 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내년 개강 전에 읽지 못했던 많은 책들과 한자 6급까지 공부하는 걸 장기 목표로 설정하게 되다.

6. 구체적 세부내용은?

구체적으로 책 읽기는 달에 하나씩 읽은 것을 목표로 하여 읽은 뒤 독서기록장을 기록하기로 하였다. 아직 집중력이 짧기 때문에 이동 시간에 창밖을 보며 멍 때리는 시간에 책을 조금씩 읽기로 하였다. 만약 익숙해진다면 다른 여유 시간에도 책을 읽고 싶다. 또 세운 계획을 성공한다면 보상으로 책 한 권씩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한자 공부는 급수에 맞춰 공부하기로 했다. 한자의 개수가 적은 10급, 9급, 8급은 한 달 안에 마치고 100개 이상으로 개수가 늘어나는 7급부터는 한달에 한 급, 두 달에 한 급 이런 식으로 분량에 맞춰 기간을 맞췄다.
공책에 한 급 수씩 쭉 적어 따라 써보고 외우며 한 급수를 마칠 때마다 좋아하는 일본 드라마를 보기로 하였다.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된 공부라 직접 영상을 보며 내용에 나오는 한자를 읽을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어 보상으로 정하게 되다.

7. 앞으로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데 내가 겪게 될 어려움과 극복할 방법

내가 목표를 성취할 때 겪을 가장 큰 어려움은 귀찮음인 것 같다. 모든 일을 귀찮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세워놓은 목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날이 꽤 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면 할 일을 마치지 않으면 눕지 않는 것이다.
이곳저곳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자주 피곤해지곤 하는데 그러다보니 자리에 누우면 바로 잠들어버리는 버릇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미뤄진 일이 많았기 때문에
당일에 꼭 해야하는 일을 하기 전까지는 눕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필수적인 일은 미루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어려움은 흥미이다. 흥미가 없으면 금방 질려하는 성격이라 흥미가 떨어지지 않게 목표한 일과 쉼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각 활동마다 최대 시간을 정해두고 시작하면 한 가지 일에 쉽게 지루해지지않고 오래할 수 있을 것 같다.

8. 진로로드백을 작성하고 느낀 점과 포부

한 번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의 특성을 알아보고 내 진로, 목표와 같은 것들을 지정해 실천할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나의 성향을 자세히 알게 되고 그에 맞는 직업군이나 행동을 알게되면서 나의 진로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다.
또 직접 관련 기업의 특성을 찾아보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또 직접 나의 시간을 쪼개어 계산해보며 버려지는 시간을 알게 되고 작은 단위부터 계획을 세워 그 시간을 의미있게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되다.
예전에는 목표를 세우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범위 지정하는 것이 어려워 막막하기만 했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장기 목표까지 정할 수 있게 되어 신기했다.
마인드맵을 통해 나의 관심사나 특기, 성향, SWOT분석까지 해보니 나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나도 잘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관심이나 약점, 강점도 알게 되다.
이렇게 나를 돌아보고 나의 성향을 알게되니 직업을 찾는 것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도 세웠으니 기간까지 열심히 실천하고 앞으로도 많은 목표를 세워 차근차근 이루고 싶다. 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보완해 더 건강하고 다채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